



5월과 6월의 합창

〈중〉 함성 - 또 항쟁의 깃발을 들고

‘광주 공동체 정신’ 전국으로 번지다

“80년 5월 광주시민들의 뜨거운 피 속에는 나눔과 자치·연대의 공동체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나눔과 공동체 정신의 힘이 사실상 6월 항쟁을 만들어 낸 것으로 생각합니다.”

1987년 당시 ‘민주헌법쟁취 범도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흥보국장이었던 오병윤(51·민노당 광주시당 위원장) 씨는 87년 6월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80년 5월 항쟁을 공동체 정신으로 일컬어 광주시민의 민주정신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했다.

“87년 6월 초 광주 금남로와 중앙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는 도중 돈이 필요했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즉석으로 모금을 했는데, 불과 한 시간 만에 900만원이라는 거금이 모였습니다. 그때 ‘아, 이것이 광주의 힘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씨는 80년 5월 민중항쟁 당시 광주시민들이 시민군을 위해 십시일반 성금을 모금하고, 쌀을 가꿔 주먹밥을 만들어 나누어 먹었다는 상황을 떠올렸다고 한다. 운동본부는 이 같은 상황을 좁쌀과 설운의 80년 5월을 겪으면서 스스로 깨닫고 배웠던 광주시민들의 나눔과 자치·연대의 공동체 정신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 내며 군사정권의 항복을 받아낸 6월 항쟁의 꽃은 이미 80년 5월 광주시민들의 정신에서 쏙 빠져나온 것이다.

5월 항쟁을 직접 겪은 이 지역 특유의 반독재 시민의식도 6월 항쟁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피해 당사자인 5월 단체는 80년 이후 각각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치열하게 움직였다.

‘나눔·연대의식’ 6월 항쟁 원동력으로

민주화단체 전국 첫 결집 조직적 투쟁

위해 치열하게 움직였다.

‘(사) 오월 어머니 집’ 안성례 관장(69·당시 운동본부 공동대표)은 “5·18 민중항쟁 과정에서 가족을 잃은 어머니들은 80년 5월 아픔을 딛고 전국 각 대학의 초청 연사로 나서 광주의 참상을 알리고, ‘80년 광주의 진상’을 알리기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도 벌이는 등 군사정권과의 결사 항전을 시작했다”고 회고했다.

이후 당시 ‘민청련’ 의장이었던 김근태(열린우리당 전 의장)씨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범국민운동본부가 생겨났다. 당시 운동본부 상임의장

이었던 배종렬(71)씨는 “80년 5월을 겪었던 광주시민들의 의식과 재야세력 등 조직적으로 기반이 튼튼한 광주에서 추진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 전남 운동본부를 서울보다 먼저 결성하게 됐다”면서 “이는 전국적인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다”고 설명했다.

6·10 항쟁 20주년 광주·전남 행사위 관계자는 “6월 항쟁 당시 광주시민들은 ‘광주시민 대동단결’이라는 구호가 시위대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정도로 누구나 할 것이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됐으며, 시민들의 자발적 통제와 협조가 있었다”면서 “이는 80년 5월의 시민군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공동체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미취업 10명 중 4명 공무원 준비

청년실업률 10.7% 전국 최고

광주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자 10명 중 4명은 공무원 등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광주지방노동청(청장 박승태)이 발표한 ‘광주시 노동시장 현황’에 따르면 이지역 청년층 실업률은 10.7%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전국 평균 7.9%에 비해서도 2.8%로나 웃돌고 있다.

임금 수준(월급여 총액)도 전국 평

균보다 16만원이 적은 183만원(정액급여 165만원, 초과급여 18만원)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지역 내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52.7%(5천180명)에 불과했으며, 미취업자의 43%가 공무원 등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003년 이후 광주지역 경제성장률은 4%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체 고용률도 55.5%로 전국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니언기자 kroh@kwangju.co.kr



北 가는 교과서 용지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안순일)과 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본부장 안종일)는 14일 오전 11시 광주 무등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북녘 어린이 교육지원을 위한 교과서 용지 지원물자 환송식’을 갖고 교과서 용지 35t을 북한으로 보냈다. 이 교과서 용지는 광주지역 학생들이 지난해부터 모은 현책 500t(3천만원 상당)을 팔아 구입한 것으로, 북한 학생들이 쓸 교과서 10만 권을 제작할

/위직령기자 jrwi@kwangju.co.kr

6·25 전사자 유해발굴 내일부터 시작

6·25 전쟁 중 광주·전남지역에서 전사한 호국 영령의 유해발굴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육군 제31사단과 국방부 유해발굴팀은 16일부터 한 달 동안 영광과 화순, 보성지역 일대에서 6·25 전쟁 중 전사한 호국 영령의 유해발굴 사업을 실시한다. 유해 발굴 작업이 이뤄지는 곳은 ▲영광군 텁탕면 삼학리 학동마을 ▲화순군 화학산 일대 ▲보성군 용문리 일대 등 3곳이다.

영광군 학동마을은 지난 1950년 7월 23일 서해안으로 진격하는 북한 인

교복에 제조 연월일 표기 의무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교복제조업체들은 상표에 제조 연월일과 최초착용시기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정부는 재경부와 산자부, 환경부, 공정위, 복지부, 건교부, 농림부 등 7

개 부처와 학계, 법조계,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중요정보제공협의회’를 구성해 오는 15일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논의한다고 14일 밝혔다.

협의회는 특히 최근 가격 논란을 빚고 있는 교복과 관련해 교복업체들이 2~3년 전의 재고를 신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제품에 제조연월일과 최초 착용시기를 반드시 명기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연합뉴스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9월 9일 경찰 합격특강 개강 6월 1일

전/외경
폐지확정

2008년부터 재용구모
5,000명이상증원(예상)

지금이
기회!

개강
6월 1일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